2018. 4. 23. (월) 언론보도

경향신문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010면 사회

경기, 어린이날 임진각서 '평화한마당' 축제

경기도는 5월5일 어린이날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DMZ(비무장지대) 평화가족한마당' 행사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연과 DMZ 관련 체험 및 퍼레이드, 특별전시회 등 3개 테마로 펼쳐진다. 오전 11시 야외무대에서는 재치 있는 퍼포먼스로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전해줄 펀타지 쇼(Funtasy Show)가 선보인다. 이어 '퓨전 난타' 공연이 열리고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Zenith)'가 통일을 염원하는 다양한 노래를 들려준다.

무대 주변에서는 3m 높이의 자이언트 캐릭터 인형과 만화에서 보았던 캐릭터들이 나와 퍼레이드를 벌이고, 어린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줄 예정이다.

특히 청청지역인 DMZ에서 서식하는 쉬리와 각시붕어 등 희귀한 토종 물고기 20여종을 볼 수 있는 'DMZ 아쿠아리움' 전시행사도 열린다. 이 밖에도 어린이들이 통일의 염원을 담아 태극 문양의 팽이에 색칠하는 전통팽이 만들기와 경찰·소방관 등의 옷을 입어보고 안전교육을 받아보는 드림랜드 직업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세계일보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Z12면 지방종합

"어린이날 임진각 놀러오세요" 경기도 'DMZ 가족한마당' 열어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경기도는 어린이날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2018 DMZ 평화가족한마당' 행사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연, DMZ 관련 체험과 퍼레이드, 특별전시 등 3개 테마로 구성된다. 공연은 오전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창작 퍼포먼스 '펀타지 쇼(Funtasy Show)'를 시작으로 타악 퍼포먼스 '퓨전 난타',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의 공연 등이 펼쳐진다.

무대 주변에서는 3m 높이의 자이언트 캐릭터 인형을 선두로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또 통일 염원을 담아 전통 팽이와 열쇠고리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며, 6·25 전쟁 음식 체험, 경찰·군인·소방관 등의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이밖에 평화누리 내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쉬리, 각시붕어 등 DMZ 토종 물고기 20여 종을 선보이는 'DMZ 아쿠아리움' 전시행사가 열려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중부일보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014면 사회

DMZ물고기 전시·만화캐릭터… 어린이날 행사 풍성

道, DMZ평화가족한마당 행사 장욱진미술관, 어린이그림대회

5일 어린이날을 행사가 경기북부 곳곳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어린이날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2018 DMZ 평화가족한마당 행사를 연다.

이번 평화가족한마당 행사는 공연, DMZ 관련 체험과 퍼레이드, 특별전시 등 3개 테마로 구성된다.

공연은 오전 11시 야외무대에서 창작 퍼포먼스 펀타지 쇼(Funtasy Show)를 시작으로 낮 12시부터 타악 퍼포먼스 '퓨전 난타',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의 공연 등이 펼쳐진다.

무대 주변에는 3m 높이의 자이언트 캐릭터 인형을 선두로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통일 염원을 담은 전통 팽이와 열쇠고리 만들기, 625 전쟁 음식 체험,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이밖에 평화누리 내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쉬리, 각시붕어 등 DMZ 토종 물고기 20여 종을 선보이는 DMZ 아쿠아리움 전시행사가 열려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이 행사는 5월 한 달간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DMZ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또 오고 싶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는 이번 어린이날 전국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새처럼 자유롭게 살고자 한 화가 장욱진의 작품처럼 자유주제를 가지고 꿈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선착순으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홈페이지(changucchin.yangju.go.kr)와 전화(031-8082-4244)를 통해 150명을 모집한다.

다음달 5일 행사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5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화지와 화판은 미술관에서 제공해 참가자들은 그림도구만 지참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장려상 8명 등 총 20명에게 이루어지며 5월 중 홈페이지 게시와 개별 연락을 통해 입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장욱진미술관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그림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아이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며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상상력과 꿈을 키우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그림그리기 대회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특별체험프로그램과 작은 음악회를 무료로 운영하는 등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다양한 미술·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서희수기자

경기일보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002면 종합

道, 어린이날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서 'DMZ 평화가족한마당'

경기도는 5월5일 어린이날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2018 DMZ 평화가족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연 프로그램 ▲DMZ 관련 체험 및 퍼레이드 ▲DMZ 특별전시(DMZ 아쿠아리움)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먼저 공연 프로그램은 당일 오전 11시 야외무대에서 '펀타지 쇼(Funtasy Show)'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펀타지 쇼'는 개그맨 임혁필이 직접 기획·연출한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재치 있는 창작 퍼포먼스를 선보여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전해줄 예정이다.

올해 평화가족한마당은 DMZ 생태 가치를 알리기 위한 'DMZ 아쿠아리움' 전시행사도 함께 열려 축제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이 전시회는 5월 한 달 동안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개최되며, 쉬리·각시붕어 등 DMZ 토종 물고기 약 20종을 선보인다. 이들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DMZ서 서식하는 물고기들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최근에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어종이다.

도 관계자는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DMZ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또 오고 싶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기호일보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K05면 종합

통일염원 공연~DMZ 서식 물고기 관람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서 추억 쌓아요

도, 내달 5일 평화가족한마당 개최 캐릭터 퍼레이드 등 볼거리 '풍성'

경기도가 5월을 맞아 DMZ 일원에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도는 내달 5일 어린이날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2018 DMZ 평화가족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연 프로그램 ▶DMZ 관련 체험 및 퍼레이드 ▶DMZ 특별전시(DMZ 아쿠아리움)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공연 프로그램으로 개그맨 임혁필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한 창작 퍼포먼스인 '펀타지 쇼(Funtasy Show)',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만나 어우러지는 타악 퍼포먼스인 퓨전 난타 공연,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Zenith)가 감미로운 음색과 화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와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무대 행사장 밖에서는 약 3m 높이의 자이언트 캐릭터 인형을 선두로 만화 캐릭터들의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특히 인형들과 사진까지 찍을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통일 염원을 담아 전통팽이와 열쇠고리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며 한국전쟁 음식, VR 영상, 페이스페인팅, 경찰·군인·소방관 등의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올해 평화가족한마당은 DMZ 생태 가치를 알리기 위한 DMZ 아쿠아리움 전시 행사도 함께 열려 축제를 보다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이 전시회는 5월 한 달 동안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개최되며, 쉬리·각시붕어 등 토종 물고기 약 20종을 선보인다. 이들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DMZ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들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오늘날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어종이다.

박신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DMZ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다시 오고 싶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